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창1:6-27, 롬3:10). 죄와 부패한 욕심과 사망 가운데 빠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선을 행할 능력을 모두 잃은 것이다(롬7:19). 그리하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벗어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는 이 세상의 삶과 이기적 욕심과 이 세상 사이에서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화평한 삶은 영위하기가 어려워졌다.

죄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영혼과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는 부정의 불신의 병든 상태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의 상태에서 창조 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치유라면, 치유의 선행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인 것이다.

전인치유는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죄악이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였다(창3:6-21, 출15:6).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 건강과 부요를 주셨고, 질병과 치유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거듭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질병을 허락하셨다(민25:1-9). 이 때 그들이 회개하면 왕이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치유하시는데 여기서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질병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대하7:14, 사53:5).

1) 본 연구는 신채주의 석사학위논문(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과)을 수정보완 한 것임.

따라서 교회는 주어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인치유를 통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선교에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신학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동의 언어는 무엇보다도 바로 인간의 신체를 통한 전달일 것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신체의 움직임은 언어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종교의 흐름과 함께 더욱 의식화되어 사용되었는데, 무용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종교무용이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춤은 자연의 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죽어 가는 사람도 살려내어 그의 후손과 연결시켜주기도 하였다. 또한 수렵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주기도 하고 축복을 기원해 주던 춤은 안내자의 도구이며 절대자와의 매체였다.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감각적인 행동으로서의 춤은 인간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매우 주요한 부분이었다. 이처럼 원시사회에서 존재했던 무용치료의 근원은 종교적 신앙과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 무용이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황규자, 2000, 89)는 이론을 뒷받침하여 준다. 이렇듯 종교적 감정과 동작의 표현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인류의 역사와 시대를 같이 하였고, 종교무용은 인간의 신념을 자연스럽게 나타낸 방법이다(Taylor, 1981).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춤 가운데서 종교적 무용은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무용의 시원이자 최고의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사상 종교적 관념이 표현되는 예술로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도 종교적 무용인 기독교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무용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무용은 목적에 따라 예배, 공연예술, 선교, 치유, 영성, 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선교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용은 일시성을 갖지만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은 인간 공통의 일반성을 가진 인체의 움직임으로 그 의도를 전달하는 예술이므로 그 작품의 미적 가치와 일체성으로 관객과의 유통 및 안무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무용찬양 공연없이 이루어진 선교집회보다는 무용찬양의 공연 뒤에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 음성 언어가 주는 장점에 비해 비음성 언어는 훨씬 인상적이고 강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몸을 통한 찬양인 무용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다른 시그널과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보다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찬양은 총체적인 문화선교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전인치유 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인치유 선교에 효과적인 문화선교 도구임을 알리고, 선교전략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은 저서 및 논문을 통한 문헌연구와 정보검색을 통한 조사연구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무용/전인치유 적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단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무용이 전인치유 선교에 효과적인 문화선교 도구임을 알리고, 선교전략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1. 문화선교의 정의와 필요성, 전인치유 및 전인치유선교의 이해에 대해 조사한다.

내용 2. 무용의 치료적 가치 및 기독교 무용찬양의 선교적 전략에 대해 파악한다

내용 3. 현재 사역 중인 단체의 적용 사례를 통해 도구로서의 가능성과 기독교 무용찬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II. 문화선교의 이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문화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취득한 규범, 습관 그리고 행동과 표상 지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총체로서 종교, 교육, 예술, 유희의 행위와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다(Wargnier, 2000, 25). 그렇다면 문화의 기원과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성경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문화의 유래가 아담에게 주셨던 첫째 위임으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창 1:6-28)는 명령과, 그들에게 맡겼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창 2:15)는 명령에서 발견된다. Francis Nigel, Lee(1976)는 이 명령과 결부하여 인간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문화의 근본기원을 둔다. 모든 참된 문화는 물론, 인간의 자유로운 대리에 의하여 하나님 자신이 산출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문화에 있어 모든 불완전함은 전적으로 인간 죄악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문화에 있어 선하고 참되며 유쾌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Lee, 1976, 21).

기독교는 이 세계의 문화에 대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실재를 문화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으로 이해된 문화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이나 학문, 특히 예술 작품들을 말하고, 더 넓게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습득되고 형성된 독특한 사고와 느낌과 행동 방식 전체로서 교회와 가정, 사회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리킨다.

기독교 문화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독교인이 만들어 낸 예술 작품이나 CCM,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PC게임 같은 대중문화이다. 하지만 기독교 문화를 넓게 보면 기독교인의 활동 전체, 즉 사고방식, 가치관, 관련된 활동, 교회문화 모두를 의미한다.

1. 문화선교의 정의

한국 교회가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사회가 바로 이 문화를 통해 만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문화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 문화사역은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복음의 전달을 위해선 문화매체가 필요하다. 즉 21세기는 문화매체를 통한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 다양성과 다원성의 시대 속에서 문화매체를 통해 선교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게 된다(김민선 2009, 8).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육신사건에 기초한 문화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러 선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상적 변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적 변화를 통해 정체성의 혼동을 경험하고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본질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그것은 전통적 접근방식에서 성육신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전환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문화선교는 기독교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고 규명하는 것을 넘고, 또 60년대에 강하게 제기되었던 토착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문화적 차원에 선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와 악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반 문화사 내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교활동을 말한다(김용복 1993, 376-377)

문화라는 광범위한 말이 널리 퍼지면서 모든 예술의 장르를 통한 선교를 시도하겠다는 의미에서 문화선교라는 말이 채택되어 폭넓게 사용되었다. 문화사역은 선교의 매개체가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논해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문화적 요소가 아닌 것이 없다. 예배에서 사용하는 언어, 음악, 예배형식 등도 모두 문화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선교는 현대문화, 특히, 영화, 현대 대중음악, 문화행사 등을 매개체로 하여 세상에 접근하고 대화해보려는 시도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는 듯하다.

문화를 통한 선교로서 이해되어 온 문화선교가 문화를 향한 선교로 확장되어 이해되어야 하고, 문화선교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통한 선교’이다. 음악, 연극, 미술 등의 문화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복음전파의 효율을 높이는 선교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술적인 표현으로 담아내는 작업도 포함된다. 문화사역이란 선교의 한 매개체이자 도구가 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것들 중에 문화적 요소가 아닌 것은 없다, 전통적 예배에서 사용하는 언어, 음악, 예배 형식 등도 모두 문화적인 것에 속한다. 그러므로 문화선교 사역자들이 현대문화, 특히 대중음악, 영화, 문화 행사 등을 매개체로 하여 세상에 접근하고 대화를 보려는 시도를 문화선교라고 일컬을 수 있다.

둘째, ‘문화를 향한 선교’의 개념이다. 이는 문화선교의 개념을 확장시킨 의미로서 ‘문화를 통한 선교’의 개념이 보조적이고 방법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문화를 향한 선교’의 개념은 문화 그 자체가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박양식 2002, 14-15). 그리고 문화선교란 문화의 모든 영역을 복음적 정신과 실천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 실현하려는 선교적 실천을 의미한다(문화선교연구원 2006, 13). 즉 문화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음으로 삶의 질서와 원리를 변혁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빛에 의해 변혁되고 치유되어야 할 대상으로 문화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문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포함한다. 이 큰 역사에 기독교인의 예술적 활동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예술의 변혁과 새로운 예술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다.

진정한 문화선교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문화선교는 문화를 선교의 도구나 대상으로서 인지하고 더불어 모든 인간은 문화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행위나 사상을 같은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선교이며 그 중심적인 가치는 ‘관계성 회복’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민선, 2009, 35-39).

2. 문화선교의 필요성

21세기 한국교회의 과제는 이전과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의 내용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배타성과 함께 복음의 포괄적 수용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교, 불교, 무교, 도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한국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책임적이고 성숙한 역량을 갖추으로써 사회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시대적 차원에서의 전통문화와 기독교의 관계 정립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경제적 안정 이후에 찾아오는 현대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적 열량을 배가하여야 한다. 이른바 정보사회, 멀티미디어 사회로 상징되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복음전파와 은혜 나눔의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청년

및 청소년 계층을 수용하고 지도할 수 있는 문화적 수용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중신학의 근본적 재정립을 요청하는 정치, 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동반되는 다원화의 경향 역시 오늘의 한국 교회에게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하며, 대사회적 영향력 및 지도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곧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교회가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지 못함이 아닐까?

둘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선교의 필요성은, 한국사회는 지금 세기말적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 근대사회를 상징하는 모더니즘도 정착되기 전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현대사상이 유입되어 대중문화를 풍미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 생활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인 도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생활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인 도덕에 기초한 전근대적 가치관과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생활에서는 이성에 바탕을 두면서 자율적인 삶을 지향하는 근대주의적 교육이 행하여지고 있고, 사회생활에서는 ‘억압으로부터의 저항’, ‘다원성의 추구’, 전통에의 강조 등이 삼중적 양상으로 상징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2000, 16). 이러한 문화적 혼란 및 갈등현실은 결국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대중화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스타들이 부모나 교사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현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명 하여진 21세기를 신앙적 신학적 관점과 구체적인 선교전략으로서 맞이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성장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믿을 만한 최근의 통계자료들에 의하면 이러한 정체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공신력의 부족과 문화적 수용력의 부재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전통 및 대중문화의 수용력 배양을 통한 대사회적 지도력의 확보와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임을 일깨우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하여 정직하고 전문적이며 정의로운 기독교 시민은 양육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공신력 회복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2000, 16).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문화선교’라는 영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민선, 2009).

III. 전인치유 선교의 이해

1. 전인치유의 정의

치유란 일반적으로 “병 고침”이라 하며 신학적으로는 신적 치유(divine healing), 영적 치유

(spiritual healing) 또는 신앙치유(faith healing)라고 한다. 사람들은 의약적인 치료와 치유(또는 신유)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편 103편 3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파멸에서 구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속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성경에서는 치유가 구원을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치유는 단순히 병들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만이 아니라, 전인적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 전체적인 회복을 의미한다. 치유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또는 사회적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며, 창조 당시의 사회적 질서와 규율에로의 회복이다(창1:31). 좁은 의미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 치유, 또는 초자연적 치유로서 의약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 위에 임하여 병약한 곳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서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자비요, 은혜의 소산이다. 불완전한 육체, 혹은 정신적인 병적 상태에서 건강체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손영구 1990, 21-22).

넓은 의미의 치유란 자유적, 보편적 치유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의해서 형성된 인체의 여러 가지 면역체 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미치는 치유의 은총을 말한다. 이에겐 생리적으로 인체 내의 심리 또는 생성작용을 통하여 수시로 병적 요인을 제거하여 치료되는 생리작용을 통한 보편적 치유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있는 각종 치료제를 사용하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자연법칙을 통한 치유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 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으로 자연적 요소들을 재료로 하여 의약을 만들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합리적 이성을 통한 치유가 있는데 이것들이 넓은 의미의 치유에 해당한다(손영구, 1990, 22-27).

구약에서 치유라는 의미로 쓰인 말은 라파(rapa)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경우가 많다(시6:2, 렘17:4). 단순히 인간의 질병 뿐만 아니라 나뻐 물이 치유되거나(왕하 2:2), 바닷물이 소생함을 입거나(겔 47:8), 토기장이의 깨진 그릇이 회복되는 것(렘 18:4, 19:1), 국가적인 회복(호 6:1, 렘 51:8-9)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신약에서 쓰인 용어들로는 ‘테라퓨오’(therapeuo)로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아마이(aomai)육체적 치유(마 15:28, 행 9:34) 혹은 상징적으로 영적 치유에 대하여 사용된다(마 13:15, 요 12:40, 행 28:7, 히 12:3, 벧전 2:4). 그리고 소조(sozo)는 질병과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한다(막 5:23, 눅 8:6).

따라서 치유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차원의 온전함과 안녕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거나(Wimber, 1992, 295), ‘하나님과 피조물, 이웃과

자신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박행렬, 1994, 55-56).

2. 전인치유 선교의 이해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온역과 질병을 허락하셨다(삼하 24:15-17).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최초의 죄인이 되었다(창1:28-2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칭의와 정의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을 가져온다. 우리는 구원의 이런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이원론(dualism)을 극복하고 사회와 개인, 영혼과 육신, 현재와 미래를 구원 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David, 2000, 591). 이러한 포괄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병든 환자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교통의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 정의한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셨지만 사탄은 아직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과 빛의 세력 간의 싸움은 실제적이다(Ken Blue, 2002, 84).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은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더러워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전인치유로서의 선교를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IV. 전인치유선교 도구로서 무용찬양

1. 무용의 치료적 가치

무용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에 있다. 그러나 신체적 표현 그 자체만을 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혼과 육체의 결합된 표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무용이라는 것이다. 즉 무용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미학적 법칙에 의하여 영혼이 결합된 신체의 자연운동으로 표현하는 공간적, 시간적 종합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춤/동작 치료의 기

원은 초저연적인 대상과 대화하고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춤을 춘, 인류가 시작된 원시시대의 종족의식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원시시대의 인류는 춤의 동작들, 즉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신과 교류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치료로서 유용한 종교적 춤의 유형은 춤추는 행위자가 일으키는 엑스타시로서 원시부족에 있어왔다. 이러한 엑스타시의 치료적 가치는 춤에 의해 유도된 황홀경의 상태에서 멎쳐진 억눌린 감정의 격렬한 발산을 통해 정화되는 경험을 갖는 것이다(류분순, 2000, 11). 이와 같이 원시적인 생활 속에서 춤을 통해 이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목적 외에도 춤은 움직임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자극을 줌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서적인 면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안제승, 안병주, 1992).

미국의 제이콥슨(Jacobson)과 독일의 쉘츠(Schultz)의 논문에 의하면, 신체가 사람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춤과 자세교정은 환자의 신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환자의 감정적 상태를 의식적으로 고무시키게 된다(이시은, 1994).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대해 쉘더(Shilder)는 근육의 연속작용과 정신상태 사이에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어, 정신상태가 근육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긴장과 안정의 연속작용에 특정한 태도를 자아내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로웬(Lowen)은 유기체의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표현적인 움직임을 조장하는 치료는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감각들의 인식을 생성시키고 신체 내의 동작과 감정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춤은 전문화된 치료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춤이라는 표현예술은 창작을 통한 안전한 퇴행의 치료성, 강박관념 및 억압된 사고의 사슬에서의 탈피, 혼동에서 정리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치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춤/동작을 통한 치료는 그 비언어적인 성격상, 환자로 하여금 언어에 의한 인지양식의 한계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보다 기본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무의식 상태를 탐구하게 도와준다. 그리하여 춤 치료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을 알아내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끄집어 낼 수 있게 된다.

실버스테인(Silberstein)은 춤/동작 치료의 통합적인 기능은 감각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언어수준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가정했다. 처음에는 동작경험의 원시적인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정신적, 물질적 특징을 공유하는 감정 상태를 창출하게 되고 이것은 종종 이미지나 말로 표현된다. 이런 경우 치료사는 내담자의 도움을 받아 동작에 의해 유발되어진 것을 말로 설명하거나, 치료적 동작반응을 하는 동안에 생겨난 감정들을 내담자의 의식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춤/동작 치료는 비언어적 특징 뿐 아니라 동작의 이미지를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와 비언어적 기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출구는 바로 신체이고, 춤은 이 신체의 움직임을 정서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어떤 다른 분야의 예술보

다 더욱 커다란 치료적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춤이라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움직임에 투여된 내면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치료적 신체 움직임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2. 기독교무용 범주 및 구성요소

1) 기독교무용 범주

기독교무용은 현재 기독교 내부와 외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 시 드러지는 예배무용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무용 등을 포함하며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무용을 기독교 무용이라 할 수 있다(한재선 2009, 7).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무용은 성경에서는 ‘춤’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기독교 무용과 같이 성경을 바탕으로 드러지는 춤을 지칭하는 통일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워십댄싱(worship dancig), 몸찬양(body worship), 찬무, 춤 찬양, 성무, 찬양율동, 선교무용, 예배무용,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 크리스천 댄스(christiandance), 경배무용, 무용찬양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지지만 worship은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 찬미’를 드리는 행위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무용은 모든 대상이 하나님에게 향해져 있는 것이다.

기독교 무용이란 몸을 수단으로 하는 무용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보여주거나 환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자신을 바치는 것이 주요 핵심이며(최신제 1995),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고 찬양과 기도의 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기독교 무용은 다양한 범주에서 추어지고 있는데 박순자(2005)는 기독교 무용의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8가지 로 분류하였다.

- 1)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드리는 무용
- 2) 교회에서 영적 부흥을 위해 사용되는 무용
- 3) 교회에서 성도간의 교제를 위해 사용되는 무용
- 4) 교회에서 영, 유아부, 초, 중, 고등부, 대학생 및 청, 장, 노년부에 이르도록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무용
- 5) 성도 및 일반인들의 건강과 효과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무용
- 6)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용
- 7) 공연 예술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용
- 8) 신학대학 및 신학원 등 기독교적 교육기관(선교원, 유치원 등)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무용.

기독교무용에 대한 형태적 특징은 모든 형태의 춤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 외에 일반무용과 기독교무용의 구별되는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성경말씀”의 유무이다. 즉 기독교 무용 수행에 있어서 일반 무용과 다른 점은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의 인지적 기능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가 되는 기도가 정신적, 신체적 이완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신영, 2010).

2) 기독교무용의 구성요소

기독교 무용은 영성을 위한 정적 내용(성경 말씀, 기도와 찬양)과 동적내용(행위적 기도,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적 전인건강과 치유의 선행조건인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영성을 위한 훈련(성경, 말씀, 묵상, 기도, 찬양)이 기독교무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신영(2010)의 연구에서 기도, 말씀, 찬양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기도

기독교 무용이 “온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 정의 내리듯이 기독교 무용의 핵심은 기도이다. 기도의 종류로 말하는 기도(토설기도, 간구기도, 중보기도)와 듣는 기도(회개기도, 관상기도) 행위적 기도(춤, 율동)가 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고요히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기도도 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무용, 율동이 행위적인 기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춤은 몸을 통해 감정의 분출에 효과적이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황경희, 1997). 모든 표현적인 동작을 포함한 근육의 움직임과 정서상태 사이의 상호작용은 너무도 밀접하기 때문에 정서상태는 근육상태(긴장-이완)를 연결하고 모든 근육 긴장과 이완의 연속은 특별한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킨다(이신영, 2010). 행위적 기도를 통한 이완작용은 하나님과의 대화(기도)를 가능하게 하므로 갈등이 순화되고, 심리적 안정 및 긍정적 마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런 정서 상태는 다시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말씀

우리나라에 기독교무용단체와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행해지는 기독교무용 연습(교육 프로그램)에는 행위적 기도(준비운동, 레파토리 연습)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독교 무용이 예술적인 행위로써의 목적만이 아니라 기독교 무용 자체가 예배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나눔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말씀의 메시지는 행위적 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레파토리나 작품 안무, 음악 등 기독교 무용 전반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이신영, 2010).

(3) 찬양

성경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전제하며 손뼉을 치고 춤추며 노래하는

등 모든 수단(악기)을 동원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시편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특권이자 기쁨이다(황성주 1992), 기독교 무용의 구성요소 중 찬양은 CCM과 같은 찬양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위적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신영, 2010). 때로는 음악을 듣기만 해도 감정과 생각을 가둔 것처럼 보이는 문이 열리면서 이미지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이미지는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며, 음악은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Levine 2004).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사요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악, 믿음 등 이 세 가지는 진실로 기적이에요 방황하는 영혼에게 평화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Susan, David, 1981, 18)이라고 했고 칼빈 역시 “교회음악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더욱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고취시켜 주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로우심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음악의 치유능력은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기사는 17장 14절에 “여호와여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찬양할 때 개인, 가정, 교회가 치유되며, 사회가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현장에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시며 찬양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신다.

3. 기독교 무용찬양과 전인치유선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류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독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술로서 성스러운 감성의 표현이기에 영혼을 담은 종교예술로서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창조를 주장하시는 이로서 인간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함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예배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다. 예배 속의 무용은 기쁨과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더 성숙된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음악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위치로 오늘날 확립되어진 순서와 같이 무용찬양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또한 예배 절차에서 찬양의 순서로 자리매김 되어져 찬양가운데 거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제반적인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도와 물질의 후원, 참여자의 성서적인 이해, 신앙 깊이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사역자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교육을 받은 지휘자를 초빙하듯이 전문교육을 받은 무용가의 전문지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다음은 기독교 무용찬양 사역자의 자세와 사명에 대하여 제시하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기독교 무용찬양 사역자의 자세

먼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자 헌신하고 결단되어진 사역자는 과거 모든 선지자나 예수님처럼,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목회자 또는 성도님처럼 신실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진정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사랑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무용하는 사람들은 몸짓에 의한 몸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본분일 것이다.

따라서 무용하는 선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진정한 본질이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며 그 성전을 통하여 말씀전파와 경건의 삶에 집중해야 하고 전인적인 스스로의 선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기독교 찬양사역의 문제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 간의 충돌로 인해 세상과 기독교문화 사이에서 문화적 간격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세상과 문화적 간격을 좁히기 위한 보완책으로 찬양의 새로운 장르를 도입하고 기독교 무용과 드라마 등 소위 열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완성도 면이나 전문성에서 세상 문화와 많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고급화된 기독교문화를 창출해야 할 시점에 있다. 세상 문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기독교의 본질이 조금씩 변질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순화를 위한 찬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무용도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완책 정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성세대는 복음의 메시지가 빠진 찬양이 강단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아름다운 춤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무용이 아니라 춤이다. 우리는 힙합도, 재즈도, 발레도, 한국무용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러나 테크닉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 경배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기도와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선교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무용찬양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재발견이 필요하다. 기독교 무용찬양의 올바른 사용은 깊은 영적 영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반해 그 반대의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먼저 김은희(2006)는

‘교회 내에서의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과거에 비하여 기독교 무용이라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교회 내에서 기독교 무용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무용은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기능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성서적인 근거를 둔 춤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무용은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한 행위로서 우리의 움직임에는 그리스도의 간증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 숨쉰다. 예배로서의 의미를 찾아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 기독교 무용을 통한 문화사역자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독교 무용이 모든 교회에서 수용되지 못한 상태지만 활성화된 대형 교회의 성도들은 기독교 안에서의 무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기독교 무용찬양은 그 가치가 헌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배 안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성숙한 예배와 예배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기독교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인식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기독교 무용찬양과 전인치유선교

‘치유’는 감정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할 목적으로 동시에 여러 차원에서 작용한다. 치유는 심리적인 차원은 물론 환자들이 활기찬 삶을 사는지 등과 같은 믿음 체계에도 작용한다(Anna Halprin, 2002, 0-21). 이러한 견해는 기독교 관점에서 행하고 있는 치유의 의미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치유는 감정적, 정신적, 영적 건강함을 통해 육체적 건강의 회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기독교 내에서는 치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적 사상과 무용찬양의 접목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통합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치유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떠한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 방법보다는 더욱 탁월한 치유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 춤을 통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질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 정신적 치유는 물론 육체적 질병까지도 치유 받을 수 있기에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무용치료는 영, 육혼의 전인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무용찬양을 통한 전인 치유선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여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아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만이 가능할 활동이다. 기독교 무용찬양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몸을 수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을 바치는 주요한 핵심이다. 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고 찬양과 기도의 한 방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나타난 표현기법이 같은 메시지 안에는 다양할 수 있듯이 복음

전파의 방법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춤이라는 예술 형태를 통한 것이다. 전인치유 선교는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들의 활동이며 신앙을 가진 이들의 사명, 세상 가운데 예배자를 파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사랑하심’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볼 때 기독교 무용찬양은 선교의 목적으로 쓰는 도구로 달란트를 가진 사역자들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인 치유 사역이라 말할 수 있겠다.

기독교 무용찬양은 모든 형태의 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데 일반무용이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다면 기독교 무용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영성”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성경 말씀”의 유무이다. 또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따라서 기독교 무용찬양의 사역적 수행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의 인지적 기능과 관계의 열쇠가 되는 기도가 정신적, 신체적 이완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독교 무용찬양을 작품화하기까지 그 과정은 숙고할 사항이 많이 있다.

목적과 공연 일정 및 회중의 대상 등 파악하여 주제선정, 제목선정, 작품 구상, 음악선정, 사역자 선정, 동작선정, 연습과 공간구성, 의상디자인, 의상 질감 및 제작소 결정, 소품 선정 및 제작과 더불어 분장인 조명, 무대 연출 및 감독 등의 설정, 경우에 따라서 홍보와 관객 초청 및 동원에 이르도록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 과정을 습관적이거나 세태적인 계획, 준비를 떠나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성결하게 정성을 다하여 작품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 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전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주제선정 및 공연 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서 작품 구상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작품 구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등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묵상할 때 생각을 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작품을 점차적으로 마음과 머리에 영혼과 동작에 붓기 시작하실 것이다. 기독교 무용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적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사역자의 자세를 갖추고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그 선교 사역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증거 될 것이다.

V. 기독교 무용찬양/전인치유 적용 사례 및 발전 방향

1. 기독교 무용찬양/ 전인치유 적용 사례

기독교 내에서 행해지는 무용찬양을 통한 전인치유는 명상적 접근보다는 심리 치료적 접근이다.

크리스천치유상담연구원(<http://www.hcior.kr>)에서는 2003년부터 ‘춤 치료’라는 과목으로 일반인과 연구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춤/동작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전태기 목사가 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성수련과 부부 행복 만들기 세미나 등 거의 모든 치유상담연구원 주최 워크숍과 영성수련 프로그램에서 상당시간을 춤/동작치료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2005년 4월에 열린 영성 수련회 2박 3일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무용치료로만 수련회를 실시하였는데 언어적인 내적치료만을 위주로 했던 프로그램보다도 빠른 치유가 일어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http://jigawon.com>)에서는 부부들을 위한 가정사역 훈련 프로그램에 춤/동작치료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부부간의 공감과 친밀감 등을 증진시키고 있다.

다일 영성수련원(<http://www.dail.org>)에서는 2003년부터 ‘생명의 춤’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3-4회, 2박 3일 동안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성과 춤 치료의 통합을 지향하며 여러 가지 표현예술(그림, 음악, 무용, 드라마)치료의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 밖의 기독교 단체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 소속인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무용찬양치료가 실시되고 있으며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 회복치료사역 중 문화적 차원에서 특수치료의 하나로 준비 중에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1990년 후반을 기점으로 춤을 치료의 목적으로 도입하여 무용치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무용치료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나 기독교단체들의 기독교 교인을 위한 강좌들이 속속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는 각 교회의 행사와 모임,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춤/동작을 통한 활동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2. 무용찬양 전인치유 활용 예시

실제 기독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무용찬양 치유과정은 일반적인 치료과정을 토대로 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먼저 일반적 무용치료는 1단계로 몸 깨어나기와 알아차리기를 통해 굳었던 몸을 풀고 이완시켜 세포 하나 하나, 감각 하나 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몸이 깨어나면 외부로부터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몸을 스스로 갖고 있는 리듬이나 파동을 따라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하는 과정이다. 2단계로는 몸 표현하기와 나누기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합된 영적상태를 경험하는 자신의 춤을 추는 과정이

다. 이 때 춤을 통해 내적치유가 되고, 내 안의 춤을 만나는 삶의 역동력을 얻게 된다 (<http://www.whitedance.org>). 기독교 무용찬양의 치유과정의 도입단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직접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준비단계에 들어간다. 중간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자아를 맡기게 한다. 이 때 마음의 문을 여는 만큼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확신하며 기쁨의 춤, 환희의 춤을 몸으로 혹은 기쁨 마음으로 통성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치유과정을 마무리 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무용치료 과정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치료자의 안에서 호흡하며 친히 춤추시며 친히 치료하시므로 영, 혼, 육의 전인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통한 기독교 무용치료는 전인적인 치유가 실제 일어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인치유는 곧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 무용 예술가인 실레스터 스노우버(Celsre Snowber)는 치유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자기의 몸의 경이로움과 놀이의 신기함을 발견하면서 뛰어내리고, 빙빙 돌고, 짹짹 뛰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뛰는다고 한다. 그녀가 성인들에게 뽀짝질, 짹짹 뛰기, 빙빙 돌기, 그네 타기 같은 동작을 하면서 기쁘게 뛰어놀라고 하면,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춤을 추기 시작하고, 종종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맺혀 있던 것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Celsre Snowber, 2002, 192).

이러한 견해에서 기독교 무용치료의 움직임들을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움직였을 때 치유가 일어나며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본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

3. 무용찬양을 통한 전인치유선교 발전 방향

전인치유 선교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회 내·외의 다양한 무용찬양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진정한 치유사역이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온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며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깊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예술적

특성화를 살려 전인치유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회내의 무용교육에 있어서 영·육에 강건함을 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을 성경적으로 개발 연구하여야 하고, 기독교 무용인의 적극적인 공연활동과 TV, 인터넷, 방송 매체 활용을 통한 기독교 무용찬양의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셋째, 기독교 무용의 효과를 통해 더욱 무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화를 이루어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한다.

넷째, 성공한 기독교 성향의 공연예술을 통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 또는 일반인들의 무용 예술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인다.

다섯째, 전문 지도자가 파송되어 교회학교 안에서의 찬양선교단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측면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은 비전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전문사역자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제자사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인치유 선교에 효과적인 문화선교 도구임을 알리고, 선교전략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선교의 정의와 필요성, 전인치유 및 전인치유선교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무용의 치료적 가치 및 기독교 무용의 선교적 전략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셋째, 현재 사역 중인 단체의 적용 사례를 통해 도구로서의 가능성과 기독교 무용찬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결과 무용찬양으로서의 전인치유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치료자의 안에서 호흡하며 친히 치료하시므로 영, 혼, 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으로써, 기독교 무용찬양은 치유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하여 영성의 기본요소 즉 비움의 훈련에 해당하는 정화의 단계로 회개와 기도가 요구되었다. 또한, 기독교 무용의 기본요소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자연스러운 인간 회복을 즉 전인치유선교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실천적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문화치유 선교적 도구로서 기독교 무용 찬양이 다각적으로 쓰임 받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민선 (2009). **문화사역을 통한 선교 전략 연구(뮤지컬에 대한 문화사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김은희 (2006). **교회 내에서의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2000). **21세기의 도전과 문화선교**.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 류분순 (2000). **무용동작 치료학**, 서울: 학지사
- 박순자 (2005).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도서출판 금광.
- 박행렬 (1994). **기독인을 위한 전인 치유사역**, 나임.
- 손영구 (1990). **신유의 이해**, 기독교문서선교회.
- 안제승, 안병주 (1992). **무용학 개론**, 서울: 신원문화사.
- 이시은 (1994). **무용치료의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신영, (2010). **기독교무용 프로그램이 기독교 성인여성의 건강관련체력, 혈중지질, 신경내분비계 및 면역반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재선 (2009).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무용의 유형과 현황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황규자 (2000). **D.W. Winnicot의 대상이론을 적용한 무용심리치료**. 한국무용치료학회 논문집,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Celste Snowber, (2002). **몸으로 드리는 기도**, 허성식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David, J.B (2000).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 Francis Nigel, Lee(1976).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Phiadelphia: Prpco.
- Mcpherson, AmieSempl. *Declaration of Faith* (LosAngels, CA : International Churchofte Foursquare Gospel, n.d.).
- Ken Blue (2002). **하나님이 병 고치는 권세**, 조종남 역, 서울: 서로 사랑
- David J Susan (1981). **루터와 교회음악**, 교회음악(여름호), 18.
- Taylor, Margaret (1981). *A Time to Dance:SymbolcMovementi worship*, Austrn: The Sharig.
- Wargnier, Jean-Pierre (2000). **문화의 세계**, 주형일 역, 서울: 한울
- Wimber, John (2003). **능력 치유**, 이재범 역, 나단출판사.

[전인치유 단체 참고 사이트]

다일 영성수련원 <http://www.dail.org>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 <http://jigawon.com>

크리스천치유상담연구원 <http://www.hcior.kr>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 무용찬양을 통한 전인치유 선교연구	발표자	신채주
		논찬자 (소속)	안비화 (안양시립예술단 상임안무자)

이 연구는 기독교 무용의 중요성과 그것이 전인치유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의 상태에서 시작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을 때 경험하는 영적, 육체적 고통이 어떻게 전인치유와 관련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기독교 무용이 이러한 관계 회복과 치유의 수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무용이 단순한 예술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자 복음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은 현대 선교의 필요성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용이 단순한 신체적 표현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신념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기독교 무용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지를 더 많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에 따른 효과를 데이터로 나타내 준다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무용의 교육적 측면과 대중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된다면, 교회 내외에서의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 연구가 기독교 무용을 통한 전인치유 선교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